

34개국 특파원이 전하는 재미있는 세계 소식

60억 명이 공존하는 지구에서는 천태만상, 다종다양한 일들이 시시각각 벌어집니다. 그중에는 이역만리까지 알려지는 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부터 멀리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34개국 44개 지역에 상주하는 특파원과 통신원 60여 명의 광범위한 해외 통신망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특파원들이 전한 소식 가운데 흥미로운 기사를 골라 소개합니다.

중국



▶ 20년 뒤, 마카오 면적 12% 확대

마카오의 면적이 향후 20년 동안 12%까지 늘어난다. 마카오 정부가 마카오 반도 북동쪽과 남부 해안, 타이파 섬 북부 해안을 매립해 362ha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주장(珠江) 삼각주 서쪽에 위치한 마카오는 1989년 17.4km에 그쳤던 면적을 1999년 23.8km², 2009년 29.2km²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토지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홍콩 정재용 특파원



마카오

▶ 만리장성은 고무줄, 발표 때마다 느는 길이

중국 당국이 지린(吉林)성 통화(通化)현에서 또 다시 만리장성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고성(古城) 터와 봉화대 등으로,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는 이들 유적이 만리장성의 부속 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고고학계는 이를 근거로 만리장성의 북쪽 동단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곳보다 10.9km 더 동쪽에 있는 통화현임을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통화현은 인근의 지안(集安)과 함께 고구려의 대표적 발흥지로, 2006년 고구려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대형 고분군이 발견된 곳이다. 선양 박종국 특파원



▶ 프랑스 박물관·미술관 파업 사태

프랑스의 관광 명소인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파업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 오르세 미술관, 로댕 미술관, 퐁피두 센터 등이 2009년 11월 23일부터 문을 닫았다.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으로 직원들의 수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이유로 정부의 개혁에 반발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프랑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8천만 명에 이른다.

파리 이명조 특파원



▶ “인공 섬 가라앉는다고?” 두바이 발끈

지질 조사 전문가의 위성 고도 측정 결과, 세계 최대 인공 섬인 팜 주메이라의 지반이 연 평균 5mm씩 침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개발 기업인 나킬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나킬은 이 발표가 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아자수 모양의 인공 섬인 팜 주메이라는 2001년 착공돼 120억 달러(한화 14조 원)를 들여 조성됐다. 두바이 강중구 특파원



▶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투어 방식 확 바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소인 금문교의 투어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는 금문교 타워 꼭대기에서 주변 풍경을 즐기고, 출입이 제한돼 있는 금문교 밑 허브 구조물에도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문교 관리 당국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문교 직원 전용 통로와 계단 등의 설비를 활용, 관광객들에게 유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금문교의 투어 방식이 바뀌면 한 해 9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김성용 특파원

▶ 시위대에 '점령' 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호주의 상징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2009년 12월 15일 시위에 나선 환경단체 회원 5명에게 '점령' 됐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회원인 이들은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오페라하우스 꼭대기에 올라가 "정치는 그만, 지금 즉시 기후변화 협상 타결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전 내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다. 시드니 이경욱 특파원

